GLOBAL Partners
글 로 벌 파 트 너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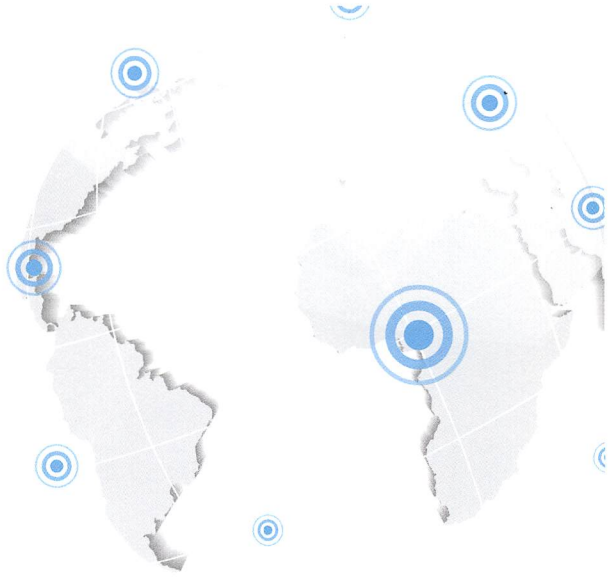
www.gpinternational.org

2019.9. / Vol.72

2019 하반기

GLOBAL partners

글로벌파트너스



C/O/N/T/E/N/T/S

GP칼럼 /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 1

신임이사 인터뷰 / 김태규 목사(열린하늘문교회) / 4

선교사 행전 / 김재복 장로 / 8

김은석 김선옥 선교사 / 14

추방된 선교사, 비자발적 철수 / 김청해 선교사 / 20

하나님의 CHOSEN, MK / 주희경 선교사 / 26

국제협의회 & GP의 날 스케치 / 민수식 선교사 / 32

선교도서 소개 / 복음에 빚진 사람 & 참새의 믿음 / 35

GP선교회 소속 선교사 / 36

GP 이사회 / 37

표지사진 이득천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사진기자로 사진을 시작하여 네팔지진을 계기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다. 현재 로힝야난민촌 사진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케냐, 잠비아 등의 다큐멘터리 사진도 계획하고 있다.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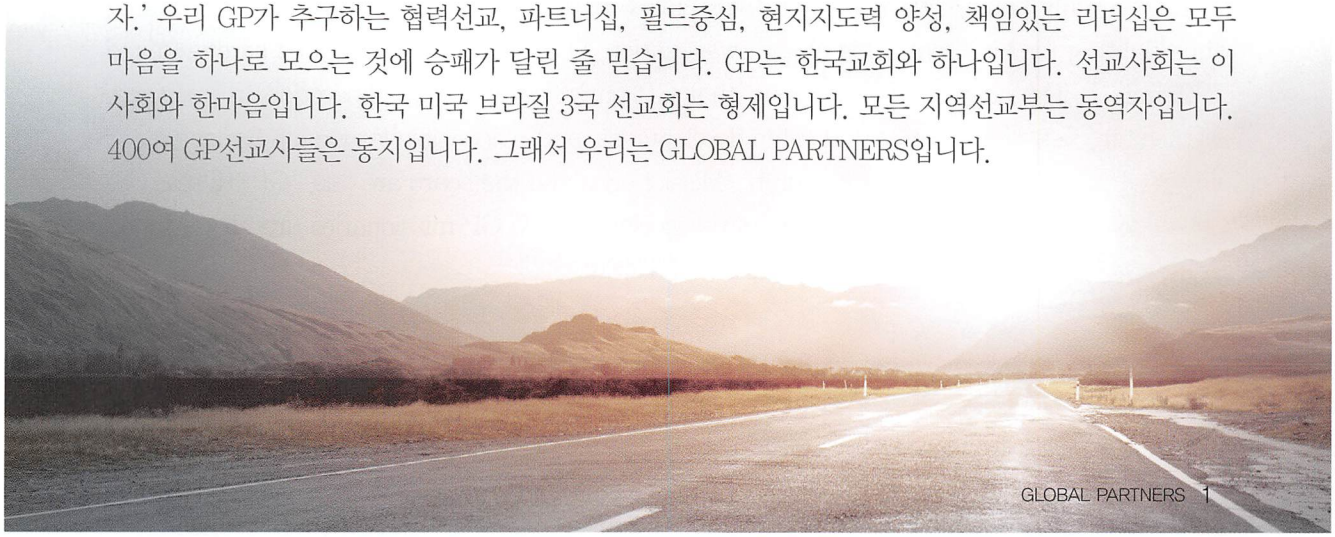
김동건 선교사(GP KOREA_National Director)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GP가족들에게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세계선교에 함께 함이 큰 은혜입니다. 연약하고 여러모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써 주심이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지난 5월 지피 20주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큰 반성과 동시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KIM에서부터 한국교회와 함께 걸어온 51년의 세월이 더욱 그러합니다. 돌아보면 회개는 여전히 우리의 몫이며, 감사는 마땅히 하나님께 속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현지지도력을 개발하며 창의적 선교를 감당할 것인지는 여전히 큰 숙제입니다. 지구촌의 다양성과 거기에 부합하려는 사역의 전문화를 생각하면, 아마 우리는 이 숙제를 주님 오실 때까지 풀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교사역은 계속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GP가족들이 선교의 중심(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대표로 부임하며,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료선교사님들, 이사님들과 한국교회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그리고 본부사역자들을 만나며 분명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달라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교사역에 헌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른다면, 선교라는 주제를 덮고 있던 다양한 거품들이 걷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공통된 중심이 다시 부상하고 주목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치 빙하의 수면 아랫부분처럼.

고 조광채 전 이사장님은 병환 중 천국입성을 눈 앞에 두시고,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더 보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쁜 호흡으로 주신 두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GP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어 선교에 함께 집중해가자.' 우리 GP가 추구하는 협력선교, 파트너십, 필드중심, 현지지도력 양성, 책임있는 리더십은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승패가 달린 줄 믿습니다. GP는 한국교회와 하나입니다. 선교사회는 이사회와 한마음입니다. 한국 미국 브라질 3국 선교회는 형제입니다. 모든 지역선교부는 동역자입니다. 400여 GP선교사들은 동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GLOBAL PARTNERS입니다.



To God who is the center of all things

Kim DongGun (GP-KOREA National Director)

Greetings to the GP family in grace, love, and peace of our God. What a blessing it is that we can partake in the glorious work of world missions! It is indeed amazing and encouraging that he uses weak and broken people like us.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GP this past May was an occasion for both thanksgiving and reflection.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considering the last 51 years in which KIM has walked along with the Korean church. Looking back, repentance remains our duty while thanksgiving rightfully rises to God. Building local leadership and developing creative missions remains a task challenging us. Given the diversity of the global village and specialization of the ministry needed to address the changing times, this task could remain incomplete in his return. Nevertheless, I am confident that our missions work will continue to be meaningful and remain active because our God sees and receives what is inside of us. When all the GP family continues to offer our mission-centered hearts to God, it is he who will accomplish the work. He will receive and use us.

As the GP Korea's national director, I have been able to meet with a variety of people. While meeting fellow missionaries, board members, elders and members of Korean churches, and the headquarter staff, I have realized one thing. Though our ideas may differ, our core continues to be directed toward God. Though we are weak and lacking in many areas, we obey God as we continue to dedicate ourselves to the missions work. When the hype over missions fades with time, I trust that what is in our core will surface and receive the focus like the bottom of the iceberg that is presently hidden.

The late chairman of the board, Cho GwangChae, said two things to me as he was preparing for his heavenly home. "We must send more missionaries. And we must be one." Speaking while fighting for his breath, his charge was clarion. "Let us focus on missions as one united GP family." The success of everything that GP pursues including cooperation in missions, partnership, field-focus, local leadership development, and responsible leadership hangs on our unity. GP is one with the Korean church. Missionaries and the board are one. GP-Korea, US, and Brazil are brothers. All field units are associates. 400 GP missionaries are all partners. That is the reason why we are the GLOBAL PARTNERS.

Redação do diretor nacional da Cor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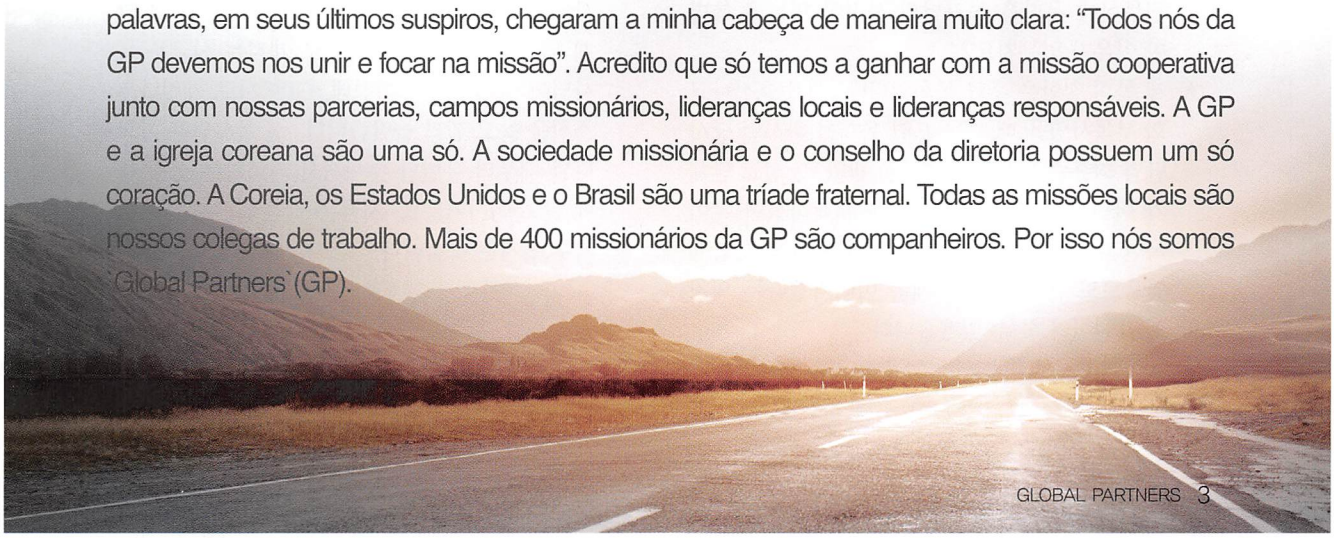
Missionário Dong-geon Kim(Diretor Nacional da GP Coreia)

Agradeço a Deus pela sua graça e desejo amor e paz à família GP.

É de imensa graça estarmos juntos nessa abençoada e gloriosa missão mundial. Fico surpreso e inspirado ao ver que somos usados por mais fracos que sejamos. Em maio completamos 20 anos de GP e damos graças a Deus! Caminhamos até aqui por 51 anos desde que a missão KIM se uniu com a igreja coreana. Ao olhar o passado, vemos que o arrependimento ainda faz parte de nós, porém nossa gratidão pertence a Deus. Ainda é um grande desafio desenvolver liderança local e assumir missão criativa da última geração. Se pensarmos na diversidade do mundo e na especialização do ministério para superar o grande desafio, talvez não consigamos resolver essa "lição de casa" até que o Senhor venha. Apesar disso, estou confiante de que nosso trabalho missionário continuará sendo significativo e continuará existindo no futuro, pois Deus permanece no centro. Quando a nossa família GP coloca Deus no centro das missões, Deus age e realiza grandes feitos. Ele nos recebe e nos usa.

Por ser o representante da sede da Coreia, pude conhecer muitas pessoas. Ao encontrar missionários, diretores, pastores de igrejas coreanas, anciãos e funcionários das sedes, tive conhecimento de um fato. Apesar de termos mentalidades diferentes, nosso foco central continua voltado para Deus. Somos fracos e falhos em muitos aspectos, mas somos obedientes a Deus e dedicados ao trabalho missionário. Com o passar do tempo, as sombras que cobrem o tema missão desaparecerá e o que temos em comum em nosso interior ressurgirá e será notado, assim como o fundo da superfície de uma geleira, acredito eu.

O nosso ex-presidente Kwang-chae Cho, antes de entrar no Reino dos Céus durante sua enfermidade, me contou duas coisas: "Devemos enviar mais missionários e devemos nos tornar um só". Essas palavras, em seus últimos suspiros, chegaram a minha cabeça de maneira muito clara: "Todos nós da GP devemos nos unir e focar na missão". Acredito que só temos a ganhar com a missão cooperativa junto com nossas parcerias, campos missionários, lideranças locais e lideranças responsáveis. A GP e a igreja coreana são uma só. A sociedade missionária e o conselho da diretoria possuem um só coração. A Coreia, os Estados Unidos e o Brasil são uma tríade fraternal. Todas as missões locais são nossos colegas de trabalho. Mais de 400 missionários da GP são companheiros. Por isso nós somos `Global Partners` (GP).



신임이사 인터뷰

물위의 배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

김태규 이사 / 판교 열린하늘문교회 담임목사

교회건축 앞서 선교지에 교회 학교 먼저 세워
성도들 자발적 동참, 41개 교회와 학교 개척
제일 좋은 훈련, 선교지의 선교사와 직접 대화

Q. 판교에 열린하늘문교회가 정착한 시기와 교회 근황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입당한 지 9년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문도연 장로님께서 판교의 땅을 교회에 헌물하시면서 종교 부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후 건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일 출석은 장년과 어린이 포함 1,000명 가까이 출석하고 있고, 재적 수는 1,300명 정도 됩니다.

Q. 집무실에 옥한흠 목사님의 사진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A. 제 목회 철학은 훈련 목회입니다. 제가 호산나교회 부목사였을 때, 제자훈련 목회를 하시던 당시 담임 최홍준 목사님께 영향을 받았고, 선교 단체가 아닌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하셨던 분이 옥한흠 목사님이셨기에,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훈련 목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GP선교회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A. 사실 잘 몰랐습니다. 'GP'라는 선교단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김동건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GP한국선교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탈봇신학교에서 유학할 때 그곳에서 해마다 선교주간에 선교단체를 소개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가 홍보를 하는데 그때 GP선교회도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접할 기회가 없다가 김동건 선교사님이 GP한국선교회의 대표로 오시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부이사장으로 계시는 신금용 목사님이 고신측 선배이신데, GP이사로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유별난 분이셔서 기억하는 선배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뵙지는 못합니다.

Q. GP한국선교회의 이사로 들어오신 동기는 무엇인가요?

A.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김동건 선교사님이 GP한국선교회의 대표가 되면서 권하기도 하셨고, 김인중 이사장님의 말씀처럼 GP한국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좋은 모습들, 전략들이 도전되고 배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김동건 선교사님을 통해 방콕에 있는 파키스탄 난민들을 지원하고 후원하였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GP한국선교회를 통해서 후원하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선교에 대한 비전이 궁금합니다.

A. 제가 신대원 졸업 시험 때 교수님들이 '앞으로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안디옥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제 모델 교회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던진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교로 인도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열린하늘문교회가 선교지에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들었는데, 그 동기는 무엇인가요?

A. 판교에 생긴 우리 땅에 우리 건물을 짓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교회는 이미 건축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고, 서른아홉에 담임으로 온 저는 두렵기도 하고, 건축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건축하기에 앞서 선교지에 무언가를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선교지에 교회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기쁨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의 학교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도들이 단기선교를 하러 가서 교회를 방문하고 수고하고 돌아와서 선교에 마음을 갖게 되고 이것이 교회의 굉장한 목회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많은 분이 선교지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데 동참을 해 주셔서 제가 부임한 지 13년 동안 41개의 학교(유치원)와 교회, 선교센터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의 요청이 오면 선교지에 가서 확인하고 지원하였는데 선교사님을 신뢰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교에 특별한 열정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니까 선교지에 100개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계획을 얘기할 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 선교지에 건축하기보다는 가정별로 목적헌금을 구축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

다. 성도들이 목적헌금을 하는 것은 신뢰가 되는 것이고, 직접 가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의 열매를 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Q. 교회의 선교사역을 소개해 주세요.

A. 우리 교회는 파송 선교사가 한 가정입니다. 필리핀 출신 선교사입니다. 롬멜/에덴 선교사인데 고신에서 M. Div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분들은 캄보디아에 세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외 25명은 모두 협력 선교사입니다. 파송 선교사가 적은 것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잊을 수 없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선교에 열정이 많으시고 교회 중심의 선교를 하셨고 앞장서 주셨습니다. 교회가 300명 정도 모일 때 선교를 자유롭게 하기 어렵고 교회가 건축 중에 선교가 쉽지 않았으나 장로님께서 거침없이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지금처럼 열심인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역할이 중요했고, 또 중요한 역할은 선한사마리아회입니다. 선한사마리아회는 실업인 선교회였는데, 실업인이 많지 않아서 명칭이 바뀐 경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을 당한 곳에 선한 이웃이 되어주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교지역은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성남의 독거노인들에게 반찬 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Q. 선한사마리아회에 대해 좀 더 소개해 주세요.

A. 선한사마리아회(선사회)는 선교지의 필요가 많아지고, 우리의 이웃이 선교지라고 생각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원들이 내는 금액으로 선교사들과 국내외기관을 다 지원하고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선사회는 총 141개 가정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124가정이 정기후원을 하고, 청년과 중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전 교인의 20%에 해당하는 약 2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1,300만 원 정도를 정기후원금으로 지출합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국가를 후원합니다. 후원금의 15~18%는 국내 개척교회, 선교기관, 중고등학교에 사용됩니다. 후원계좌는 총 3개가 운영됩니다. 매월 지원하는 일반계좌와 해외선교 목적계좌, 그리고 선교사 자녀 장학금 계좌입니다.

선사회는 목적헌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회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나는 선교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회 안의 재정으로 했다면 편하게 선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선교 후원의 좋은 토대가 되었습니다. 의도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해주셨습니다.

Q. 지금까지 41개 교회와 학교를 개척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특별한 곳이 있을까요?

A. 참 어려운 질문인데, 굳이 하나만 얘기하자면, 필리핀의 민도르섬입니다. 그곳은 부족민들이 모두 산에서 사는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삽니다. 몹시 가난한 곳이지요. 그곳을 한 선교단체 대표이신 김도명 목사님을 통해 소개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열악한 산악지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라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교지마다 은혜를 주시고 좋은 선교사들을 만나서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교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로만 후원하지 않고 선교지에 직접 가서 보니 선교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선교지의 필요를 알 수 있어서 선교의 좋은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교회에서 시행하는 선교 훈련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A. 단기선교를 하러 가기 전 4주 정도 토요일에 훈련합니다. 선교사를 초빙해서 선교지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지역의 필요를 협의한 후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선교학교는 해마다 열지만, 선교

단체처럼 체계적이지는 않습니다. 제일 좋은 선교훈련은 단기선교로 들어가서 선교사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선교에 대한 이해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가 개척한 선교지의 교회를 90% 다녀왔습니다. 매년 60명 정도의 성도가 단기선교에 참여합니다. 저보다 선교에 열정이 많은 분들이 성도 중에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주도하기보다는 물 위의 배처럼 역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GP한국선교회의 이사도 그런 흐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GP한국선교회와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GP한국선교회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선교사를 허입하고 파송하며, 현장의 선교사를 케어하고 또 이사 회비를 잘 내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웃음) 지금은 시작이니까 들어가서 제가 할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저희 교회가 도울 부분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선사회도 선교의 방향과 전략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궁금해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습니다. GP한국선교회에도 훌륭한 이사장님이 계시고, 김동건 선교사님도 계시니까 저도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조금씩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Q. 선교사와 후원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A. 선교사도 후원자도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목회자를 응원해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초심을 늘 간직하는 것입니다. 초심을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 첫 마음으로 행하면 선교의 좋은 열매가 맺히고 지속해서 선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김동건 GP한국 대표 / 한경성 간사

선교사행전

"은혜의 빚 갚는 길, 시니어 선교사"

김재복 장로 (장지교회)

하나님의 부르심과 행하심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 대신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이후 그곳의 교수로 평생을 보내던 저는 해군사관학교 교수의 최고위직인 교수부장이라는 영예에 더하여 제독(장군)으로 진급하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벗자마자 건물도 없는 신설대학 설립책임자를 거쳐 초대, 2대의 총장직 8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기독교 대학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는 등 그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제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들에 감사하여 그 보답을 위한 길을 찾고자 애써오던 중, 뜻밖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름을 받은 대학에는 매주 채플 시간이 있었으며, 채플 인도자 섭외를 교목이 하면, 그 강사의 안내와 소개 등은 제가 주로 맡았습니다. 하루는 이 대학 교회의 청년부 학생들이 필리핀으로 단기선교를 갈 때마다 이들을 돕고 지원해 주던 선교사를 강사로 모셨습니다. 채플을 마친 후에 함께 여러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선교사가 되셨나요? 현지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하고 묻자 "장로님, 선교지에 한번 와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며, "한번 와보세요"하시는 겁니다.

그 선교사의 선교지 방문제안 시기는 저희 부부가 저희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 길을 찾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날 퇴근 후 이 이야기를 아내와 나누던 중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우리 이제 세상일을 그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떨까요?"라고 서로 질문하다가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저희 부부의 오랜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 했나?

그 선교사의 제안으로 먼저 2주간의 선교 예상지 탐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교에 임하려고 해도 '어떤 선교를 하려느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라는 대답 이외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없었

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 '선교사를 돕는 일'이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출석 교회에 더 봉사하고, 더 잘 섬기자고 다짐하면서 선교를 위한 기도를 계속하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40여년 이상의 군과 직장의 현역 생활에서 벗으나 사회 적응 기간을 보내며, 선교를 위한 마음의 준비만 하고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1년 전 다녀온 그 곳으로 다시 가보게 하셨습니다. 필리핀 앙겔레스의 그 선교사 집에 1주일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보다 더 구체적인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전반을 살펴볼 기회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르치는 일'

그때 이 선교사가 "장로님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왔습니다.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주님이 처음부터 부어주신 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는 "현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어 그들이 그들의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이 가장 귀한 사역이 아니겠느냐. 장로님은 오랜 교수 경력과 박사학위도 있으니, 이곳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저도 현역 생활 대부분을 강단에서 보냈기에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며 쉬운 일이라 "그게 좋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선교사가 알고 있던 대학을 방문해 총장을 만나 '한국어 원어민 초빙교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해온 '가르치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에 열정을 가진 초보 선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사역 계획을 미리 예비하시고 계셨음을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서울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외국인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강의와 다른 선교사 돕기

초기 선교의 접촉점으로 준비한 한국어 강의는 약속된 대학과 이 대학 부속 고등학교의 전 학년에 대한 강의를 요청받았으나, 현지 협력 선교사의 사역견학과 동행 및 현지 적응 시간 부족으로, 대학생에게만 주 1일 가르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첫 학기 강의 후 같은 재단의 다른 대학 강의도 요청받아, 2학기부터는 두 대학의 강의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정착기간을 끝내고, 다음 사역으로 주어진 교회 개척과 다른 선교사들의 한국어 강의 요청이 너무 많아, 이 대학에서의 한국어 강의는 2년으로 끝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를 돕는 선교'가 당초 저의 선교 목적이었기에 다른 선교사들의 한국어강의 지원 요청은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한국어 동시 통역대학 강의, 초등학교 교사와 목회자를 위한 강의, 초중등 통합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강의 등과 나중에는 신학교 학생들과 필리핀 공군부대의 한국어 특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어 강의는 그때나 지금도 훌륭한 선교 매체로서 그 적용범위는 무궁무진하며, 시니어 선교사가 비교적 쉽게 감당할 수 있

는 사역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강의 못지않게 많았던 선교사들의 요청은 청소년이나 목회자 대상 리더십 관련 특강이었습니다. 나의 군과 대학 재직 경력을 내세워 청소년 수련회, 현지 목회자 영성 세미나와 신학교의 정규 리더십 강의 등의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한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의 졸업식 등 각종 행사의 축사, 채플 인도 등의 초청에도 선교사가 요구하면 조건 없이 지원했습니다.

한번은 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선교사가 신학생들의 절도와 규칙 준수 자세가 예비 목회자로서 매우 부족하다며, 이를 위한 한국의 군인정신 주입을 위한 특별강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나는 리더십 전공자도 아닐 뿐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 신학생 대상의 강의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사관학교 출신으로 사관생도 교육에 평생을 다 받친 경력과 10년 이상의 대학 운영 책임자 경력이면 충분하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수락하게 되어 예수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목회자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평신도로서 목회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 저 자신의 현 상황을 재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두 번의 특강으로 시작된 이 강의는 한국 복귀 직전까지 4년 동안 리더십 정규과목 담당 신학교 교수로 지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나의 현역 생활 30년을 교수로 보낸 경력과 경험을 현지 선교 사역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던 한 사례로서, 여타 시니어 선교사들도 자신의 현역 경력들이 선교지에서 좋은 사역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와 같은 직접 강의 협조를 통한 선교사 돕기와는 별개로, 현지 선교사의 '사역 도우미' 역할을 통한 시니어 선교사 사역을 감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현지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의 영성 함양 수련회와 리더십 배양 세미나 등을 통한 현지 교회의 부흥을 돕는 일을 주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로부터, 이 사역의 진행과 통역 협조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 또한 선교사를 돕는 일이기에 무조건 수용하여 기꺼이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병아리 선교사 시절의 이런 협조는 선교에 대한 공부

와 목회 경험도 없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목회사역까지 하게 된 제가 사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선교경험을 많이 얻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돕는 선교'를 하러 왔던 저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는 길을 미리 마련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선교사들이 가장 필요를 느끼면서도 배우기 어려워 쉽게 포기하는 현지어인 타갈로그어 공부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선교사 타갈로그어 스터디그룹'을 결성했습니다. 제가 이 스터디그룹의 진행 책임을 맡아, 초보자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의 정복 방법, 현지 사역에 꼭 필요한 기본회화 연습과 설교문 작성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이 스터디그룹은 저의 귀국 직전까지 계속되었으며, 지금도 자체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 등은 지역 선교사들에게 평신도 시니어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어 주는 계기가 되었고, 오래 체류했던 선교사나 전문 목회자 선교사들에 비해서 사회적 경륜이 풍부한 시니어 선교사의 활동 분야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예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교회개척, 목회사역까지

최초 사역지 도착과 함께 출석했던 현지인 교회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어린이들이었는데, 필리핀 복음화의 미래인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주일학교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1년여 만에 이 첫 현지 교회의 주일학교를 어느 정도 정착시켰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현지인 교회에 주일학교를 신설토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화산 이재민 집단이주 마을에 위치한 성도수 2~30명 안팎의 작은 가정 교회 Rock of Salvation(ROS)교회를 보여주시더니, 청년 2명과 10여명의 어린이들로 바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이들 주일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새로이 청년부를 결성하게 되었고, 1년 후에는 교회 부흥에 따른 새 성전 건축의 꿈을 보여주셔서, 이 주일학교로부터 스스로 성전건축기금 조성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의 뜨거운 기도와 노력으로 200명이 넘는 중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새로운 넓고 큰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연이어 자체 지(支)교회까지 개척하여 필리핀 선교의 가장 큰 보람을 안겨준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더니, 자립을 넘어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재생산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비전까지 주셨습니다.
선교지 도착 2년 만에 이런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을 보신 하나님은 앞의 두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 빈민촌 Maliwalu마을의 어린이들을 돌보게 인도하셨고, 이 사역을 통해 그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신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빈촌 Maliwalu마을에 현지인 교회의 개척은 평신도 시니어 선교사인 제가 주 사역으로 목회사역을 하도록 이끄신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선교 10년 중 7년을 이 교회 담임 선교사로 주일학교와 청년부 및 장년부 성경공부, 주일 낮 대예배와 저녁 열린 예배,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등의 정례 교회 사역에 더하여 각 절기 행사와 수련회, 성경학교, 특별 기도회 및 토요 원격지 어린이 급식 사역과 심방, 교인 애경사 업무 등 시니어 선교 10년의 희로애락이 깃든 보람과 성취 그리고 감사와 은혜의 기간으로 기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초 '선교사를 돕는 선교'라는 자신이 세운 선교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목회 사역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며, 그 때마다 그 곳에 필요한 사람과 환경 및 물질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또한 매 순간마다 감당할 길을 미리 챙겨두시어, 선교는 그 어느 하나도 선교사의 계획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때가 되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단지 선교사를 사용하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역 협력 사역

상기 한국어 강의와 현지 교회 개척 및 신축 이외에, 현지 한인교회협의회 및 선교사협의회와의 협조를 통한 선교가 직접 사역이었다면, 지역 거주 한인(디아스포라)들과의 협력 그리고 지역 현지인들과의 협조 사역들은 직접 사역에 못지않은 매우 의미 있는 (간접) 사역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지역 한인회장이, "한인학교의 상황이 매우 어려우니, 교민사회를 위해 이 지역 한인학교의 교장직을 맡아 달라."며 협조를 구해왔습니다. 당시 두 곳의 현지인 교회 사역과 신학교 리더십 교수 그리고 선교사 타갈로그어 스터디 그룹 지도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교민 자녀들의 한국 정신 주입 교육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니, 나의 학교운영에 대한 경험을 지역을 위해 좀 보태달라고 간절히 요청해 결국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015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앙겔레스 한인학교' 교장을 맡아 임기 2년을 지나고나니, 다시 한번 더 연임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당시 지역의 한인 2세인 어린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역사 및 문화를 가르치는 한인학교의 문제는 재학생이 7~80여명에 불과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그동안은 지역 교민의 후원으로 학교를 어렵게 운영하면서, 이러한 후원금 유치는 한인회장이나 교장의 노력으로 충당해 오던 실정이었습니다.

교장 직을 맡자 바로 학교 재정수입은 재학생 수에 직접 비례하므로, 재학생수의 증가를 위해 학생모집을 학교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교장 스스로 입학 자원이 가장 많은 지역 한인교회를 차례로 방문하여 협조를 구해 나갔습니다. 또한 한인들의 출입이 잦은 지역의 한인식당과 한인마트에 입학 광고지 게시, 지역 언론사 및 카톡을 통한 학교 이미지 광고 등 학생모집 홍보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교사들에게도 책임지역과 학생모집 책임량을 할당하는 등 온 힘을 기울인 결과, 부임 첫 해에 재정의 손익분기점인 재학생 120명을 넘어, 외부 도움 없이도 학교운영비의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듬해는 150명 선을 넘기자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으며 교직원 처우개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고, 운동회와 학예발표회 실시 등 교육과정과 내용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재미있고 학생들 스스로가 가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교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교사들의 사기와 참여의식을 높여, 보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교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2년 임기를 마치고 나니 연임을 세차게 요구하였으나, 한국 귀환을 이유로 1년 후인 2018년 2월말에 어렵게 사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인거주민들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

또한 한인학교 교장에 재임하면서 한인회 운영이사로 또한 한인학교 교장직 사임 이후에는 한인학교 이사로 봉사하여 지역 한인회와 한인학교 운영의 보완과 개선에 협조해 나갔습니다.

많은 교민들과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안전과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별도 주거단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주민 중 상당수가 선교사들이라 선교사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 주거단지의 운영이사를 맡아 주거 생활의 안전, 주민 민원 해소와 분쟁 중재 등의 제반문제를 담당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일을 맡으려 하지 않아, 결국 제가 4년간 이사직을 수행했습니다. 그 사이 이웃 간의 분쟁, 보안 문제, 출입 통제와 안전 문제들에 한국인이 연루되는 예가 많아, 한인 거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중재와 분쟁해결에 여러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인사회로부터 선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며, 시니어선교사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경륜으로 지역의 어른 위치에서 젊은 목회자 선교사들이 꺼리는 대민업무에도 적극 동참하는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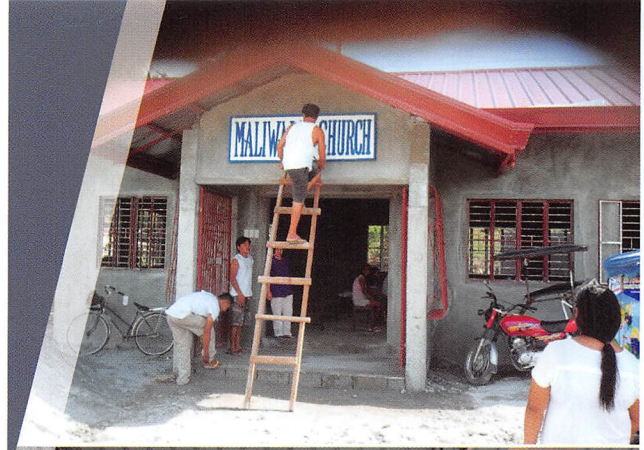
선교는 나이와 신분을 초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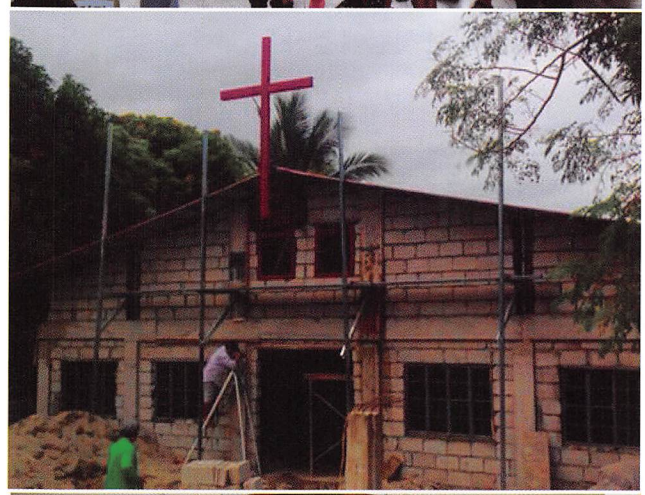
'과연 평신도 시니어가 목회자와 같은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어렵다는 이국땅에서, 그것도 열악한 생활환경과 기후조건들을 극복하고 '현지어 공부와 타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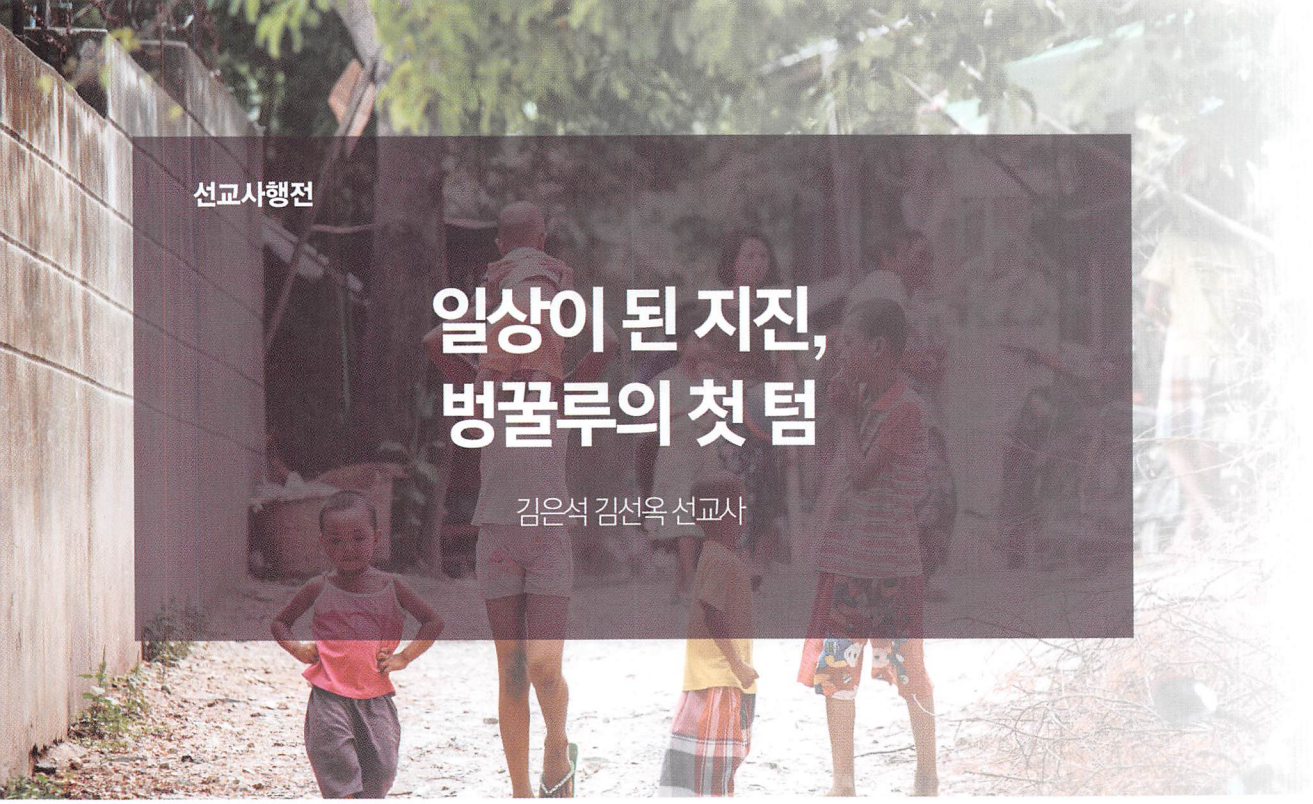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며, 성경에서도 모세나 갈렙 등의 시니어들과 빌립과 스데반 등 평신도 선교사들의 많은 예에서 보듯이, 선교는 나이와 신분을 초월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신도 시니어 선교사로서 제가 몸소 선교지 현장에서 체험한 바입니다.

지구촌을 신속하게 복음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의 사명이며,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땅끝에서 시니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 수행은 곧,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바로 그 일들을 그곳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은퇴는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 경력과 오랜 사회 경험을 지닌 평신도 시니어들이 이제 주님의 지상명령에 더욱 많이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시니어선교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김재복 이사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행전

일상이 된 지진, 벙꿀루의 첫 텀

김은석 김선옥 선교사

무사히 마친 첫텀에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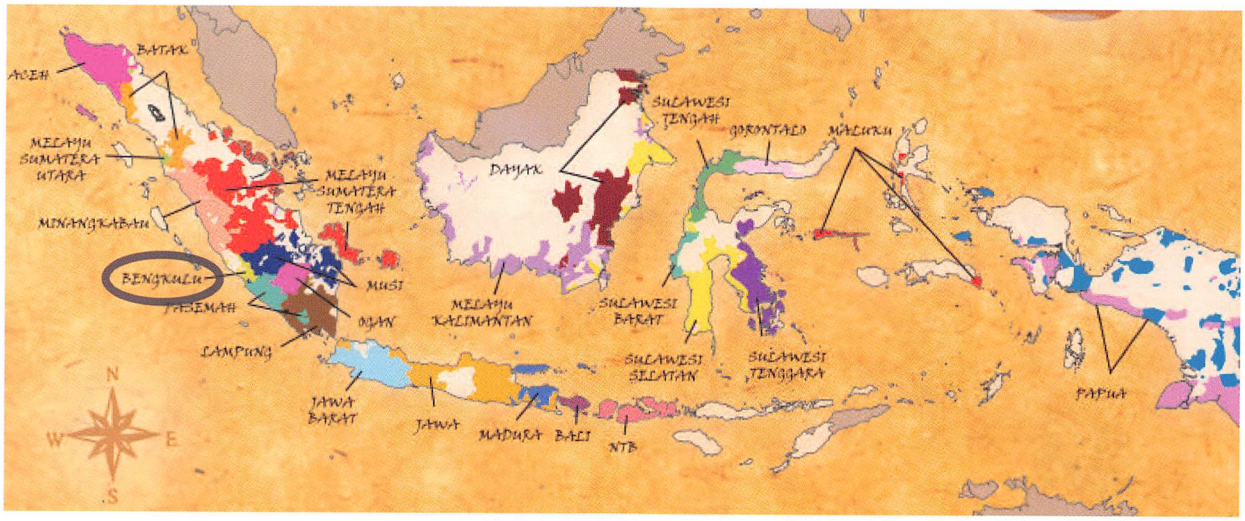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첫 텀을 마치고 본국사역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뿐입니다. 먼저 첫 텀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1994년부터 10년간 강원도 횡성에서 젖소 목장을 경영했고, 아내는 23년간 대학병원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함께 선교의 비전을 발견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12년 지피선교회에 허입되어 2013년 GPTC 훈련을 받고 2014년 11월에 인도네시아로 파송 받았습니다.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영광이는 필리핀에서 13년간 WMC선교단체에서 유소년 선교훈련(YVS)을 받고 WMC선교회 간사로 섬기다가 올해 6월 대학졸업을 하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딸 영채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저희와 함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벙꿀루에 들어가 현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인도네시아 땅그랑에 있는 UPH대학교 생명공학과 2학년을 마쳤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가라"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저희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지를 정할 때 첫번째 우리를 부르는 곳으로 가자." 그러던 중 저희 교회에서 선교부흥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강사로 오신 분이 당시 지피선교회 국제대표셨던 김병선선교사님이었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던 저희는 이 때다 싶어 김병선선교사님께 '선교사로 헌신했고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김병선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말을 들었으니 당연히 '인도네시아로 가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 번도 인도네시아를 가 본적도 없었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선, '회교국가 아닌가?' 정도로 아무 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SMC훈련과 국내훈련, 그리고 GPTC 훈련을 받게 되었고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받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재정관리, 지피선교회

사실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콜링을 받고 선교단체를 결정하는 문제가 저희에게 또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지피선교회? GMS? WMC? 저희가 알고 있는 선교단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각 선교단체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며 알아보았고 지피선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지피에 대한 자료도 보던 중 '3개월에 한번씩 재정보고를 해야 된다'는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지피선교회로 정하고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3개월에 1번씩 재정을 보고하는 지피라면 선교후원금에 대한 투명한 재정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작은 주 '벙꿀루'

벙꿀루는 인도네시아 34개 주 중에서 면적/인구/삶의 수준으로 봐도 아주 작은 주에 속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는 무슬림인데, 그중에서도 벙꿀루는 95%가 무슬림인 도시입니다. 도시인구는 약 30만명이며, 지역적으로 인도양 바다가 길게 연결되어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가끔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지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1년 정도 지난 후부터는 지진이 오면 '아~ 지진이구나…'하며 강도 5정도에는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지나갑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하루 평균 3~5회 지진이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벙꿀루 지역에도 월 3~5회 지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벙꿀루 시내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 두 가정이 전부입니다. 사업차 혹은, 벙꿀루 외곽에 탄광 사업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몇 분 계십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파송, 후원교회에서 첫 텀에 너무 시골로 들어간 것 아닌가 라는 걱정도 하셨지만 저희가 이곳에 온 목적이 있기에 저희는 감사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벙꿀루를 선택하고 오게 된 목적이 미전도종족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137개의 미전도종족

인도네시아는 약 320개의 종족으로 구성된 다종족 국가입니다. 종족의 구분은 언어가 다르고 1만명이상의 종족 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소수 종족을 합치면 더 많은 통계가 나옵니다.
320개의 종족 중에 아직도 복음 전도자가 없어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종족과 자기 종족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도 없으며 기독교 인구가 1%미만인 종족이 종족이 137개나 있습니다. (자료, IPN: Indonesia People Network)
그 중에 수마트라섬 전체에 52개의 미전도종족이 있고 남부 수마트라에는 32개 미전도 종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저희는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미전도종족에 들어가 살고 있지는 않고, 미전도종족 코디네이터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에 남부수마트라 미전도종족 사역팀(UPIS)을 만들어 4 유닛의 한국선교사들이 함께 팀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UPIS팀 사역은 4개의 현지교단(GPIN, GEKISIA, GKII, GMAA)과 협력하여 현지 사역자를 발굴하고 훈련시켜 사역지로 보내고 매년 1회 사역자 전체 세미나를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9개 미전도종족에 32명의 사역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종족에 1명의 사역자보다는 2-3명의 사역자를 파송하여 그들도 연합하여 사역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 많은 후원자와 후원교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속 기도와 관심으로 미전도종족 사역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전도 종족사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벙꿀루에서 빠당으로 가려면 차를 타고 약 20시간, 빨렘방은 약 13시간, 반다르 람뿡은 약 18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미전도종족 정탐은 적게는 2시간에서 때론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정탐여행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한번은 오간종족과 꼬무링종족을 방문하기 위해 바뚜라자를 가는 도중 람방종족 마을에서 많은 비로 인해 길이 온통 진흙으로 변해버려 차가 고립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간이 오후 6시였는데, 인터넷도 안되고 전화도 안되는 그런 시골길에 차량은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많은 지피 인도네시아 선생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듯 지나가는 천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의 도움으로 다음날 아침 7시30분에 차량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왼쪽 상단 사진 참조)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저희는 내가 앞서 행하고 주님은 뒷전에 두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선포하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지난날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희 가정은 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손 꼭 잡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다.

선교지에 나온 지 2년이 지난 후 중간보고 차 한국에 두 달간 나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스케줄을 잡고 보고를 하고 다니던 중 그만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아침 예배시간에 설교를 하던 날 병원 전도사님께서 제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며 당일에 MRI를 찍고 결과까지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예약도 안 한 환자가 하루에 MRI와 결과를 본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인데, 문제는 결과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이 상태로는 선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시간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 합니다. MRI영상을 보면 허리디스크가 터져 흘러내려 신경을 건드려 많은 통증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날 저녁에는 제천성광교회 금요기도회 설교가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어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 아내 친구 남편인 어느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자초

지종을 설명하고 제천까지 데려달라는 부탁을 하고서 선교보고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허리에 통증이 와서 주일 설교도 하지 못하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먹으면 2박3일 잠도 못 자고, 먹은 걸 다 토하는 강한 진통제를 먹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후의 수술 날짜를 잡고 인도네시아로 복귀해야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1년 비자를 받은 상황이라 반드시 들어가서 인도네시아 벙꿀루지역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도 아프면 계속 약을 먹으며 잠도 못자고 음식을 다 구토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비자 신고를 다 마치고 수술을 위해 한국에 들어와 병원 전도사님이 구해주신 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 의사 선생님과 진료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이상한 몸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5분도 못 걸어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밤에 아내와 함께 원주 공설운동장을 1시간 이상 걸어 다니는데 허리에 통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MRI영상을 봐서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데 환자 증상이 아프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피선교회 이사이신 제천성광교회 김정일 목사님의 권유로 2주간 함께 교회 사택에서 지내며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3년간 허리에 큰 통증이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음 텀을 준비하며

이제 다음 텀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미전도종족 선교를 하다 보니 종족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선옥선교사는 2차 텀에 벙꿀루에 있는 대학의 보건행정학과를 다니며 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2차텀 사역이 주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넘치길 기대합니다. 선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늘 초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입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320개의 다종족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땅에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136개의 미전도종족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136개 미전도종족에
복음전도 사역자를 파송하고 그들이 기쁨과 열정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각 종족을 섬기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미 파송된 사역자들이 있는 종족에 종족교회가 세워져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통해 전 세계 6,000여 미전도종족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꿈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을 들으며…)

비자발적 철수, 추방된 선교사

김청해 선교사

14년 사역, 그리고 추방

어떤 일이든지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하다보면, '할만하다' 혹은 '이제 좀 잘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4년 선교지에 살다가 추방되었을 때 내가 갖는 느낌이었다. '쓸만한 선교사가 되었다고 느낄 때 추방이라니…' 이런 경험은 선교사의 정신과 감정을 당혹하게 한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나라를 찾아야 하나' 하는 문제에 대한 답답함과 이후의 거취를 궁금해하는 다른 분들의 질문에 적당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까지, 추방된 선교사들은 아마도 수개월은 이런 복잡한 자신 안팎의 문제에 답변하느라 힘들다. 나 자신도 이런 문제들이 잘 정리되지 안은 상태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서 간략하게 그 과정들을 정리하고 현재 중국의 선교사추방 상황의 대강을 서술하려고 한다.

해발 2천3백미터 고산도시 '시닝'에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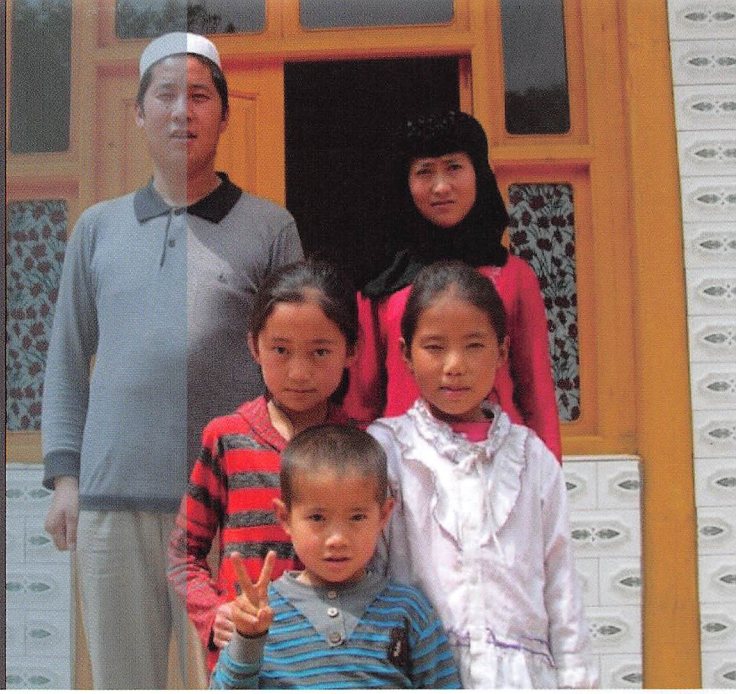
파송 받고 첫해는 호북성 우한에서 1년을 지냈다. 모든 환경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들이 새로웠고, 한편 작은 일에도 긴장감이 있었다. 이곳에서 언어훈련을 1년 받았고, 그 다음해 일단 목표사역지인 청해성으로 이동하여 언어연수를 계속 받기로 하였다.

첫 사역지인 청해성은 원래 티벳 땅인데 청나라 말기에 중국 땅으로 편입되었고 유배지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해발 3000미터 이상의 고산지역에는 티벳인이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무슬림 선교를 위해 시닝에 정착하였다. 시닝은 고도 2,300미터의 고산도시인데, 후원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산 속은 아니고 중소도시 정도의 규모이다. 지금은 인구 190만명의 큰 도시로 변하였다. 그러나 고도가 높아서 항상 산소가 부족하고 강우량이 적어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곳이다. 소통의 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은 모택동시절 전국에서 좌천되어 온 사람들이 도시민의 주류를 이룬 상황이어서 자기들끼리 교류하려면 보통화를 쓰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북경 표준어가 잘 통용되는 곳이다.

청해성 전체 민족분포 통계로 보면 소수민족의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곳이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항상 폭동이나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외부인을 향한 공안의 감시와 통제 또한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그 이유는 외국인이 지역토착민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티벳족과 교류하는 외국인들은 특별 감시대상이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1년에 한번 비자를 갱신하러 가는 우리를 볼 때마다 종교행위를 하면 위법이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할 정도로 외국인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이 곳에서의 목표 전도대상 종족은 무슬림 소수민족이다. 중국에는 무슬림이 10개 종족이 있다고 집계하

"'쓸만한 선교사가 되었다고 느낄 때 추방이라니' 이런 경험은 선교사의 정신과 감정을 당혹하게 한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나라를 찾아야 하나' 하는 문제에 대한 답답함과 이후의 거취를 궁금해하는 다른 분들의 질문에 적당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까지..."



는데, 위구르족, 회족이 인구가 많은 두 종족이고, 나머지 여덟 종족은 인구 1백만이 되지 않는 작은 종족들이다.

10만인구의 배타적 무슬림 '싸라족'

우리 가정이 목표로 하는 종족은 인구 10만의 벽지에 사는 종족인 싸라족이었다. 이 종족은 중국에 들어온 역사가 이미 9백년이 넘은 종족으로서 무슬림 다른 종족과의 통혼으로 중국 사회에 상당히 토착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겉모습은 아직도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언어도 (문자는 없는) 자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신들이 이슬람의 정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심과 자존심이 매우 센 민족이라 할 수 있다. 큰 산들과 계곡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지형 속에 삶의 터전을 이루었기에 바깥세상과 교류가 적고, 지형적 장벽 때문에 발전하기가 어려운 소수민족이다. 그렇기에 공동체성이 강하고 자연스럽게 외부세력에는 배타적인 태도가 있다.

무슬림과 교제할 때 사역의 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시간을 오래 두고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며 전도를 위한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신뢰하는 관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는데 섣불리 전도하려 하면 좋지 않은 오해와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전도 이후에 다시는 못 보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만나던 이 종족의 가정들은 모두 한 가정을 통해 연결되고 소개받은 가정들이었다. 이들은 가족중심의 강한 혈연공동체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 가족을 좋게 봐주었고 방문할 때마다 좋은 손님으로 맞아주어서 오랫동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내왕할 수 있었다. 우리는 특히 아이들을 친근하게 대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적절히 공급하면서 아이들 위주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후원자와 1:1결연사업도 시도하고, 장학금사업도 몇 년간 유지하며 여러 아이들을 지원하였다. 방학기간에는 부모들의 허락을 받아 무슬림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숙식하고 지내며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기도 했다. 이 때 만나던 아이들은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도, 방학이면 우리 집에 와서 생활하기도 했다. 대학생 때 만나기 시작한 한 자매는 지금 아이의 엄마가 되어 고향시골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

8년간 이 지역에서 전도하였지만, 이들의 본거주 지역(XH현)은 도시에서 200km 떨어진 시골길을 가야만 하는 곳이다. 가는 길도 매우 위험해서 차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사고가 난 적도 있었다. 이곳의 생활 8년 중 마지막 3년 정도는 도시에 작은 공방을 열어 아내가 출퇴근하면서, 무슬림 여성들을 대상으로 퀼트를 가르치며 전도하기도 하였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무슬림 사역의 '한'

시간이 가면서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고산환경에 장기 거주하다보니 나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매일 몇 차례씩 호흡이 가빠지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게다가 공안에서는 장기간 사역하던 선교사 가정을 쫓아내는 일이 매년 빈번하게 반복되어 부득이하게 정든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많은 무슬림 사역자들에게는 가슴에 회한이 있다. 전도의 일이 속히 진척되지 않고, 10년을 수고해도 별 성과가 없는데 대한 답답함이 쌓이고 쌓여 '한'과 같은 것이 되어 있다. 선교사로 사는 삶에 자괴감이 들고 때로 한없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무슬림사역을 하려는 후배들께 드리고 싶은 한가지 조언이 있다. 기질상 신속한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타겟 그룹과 종족을 정할 때 깊이 숙고하라는 것이다. 자신이 속히 열매를 확인해야하는 기질을 가졌거나 성취감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무슬림 사역을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선교사가 우울증에 빠지면 본인과 가족이 모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신자도 많고, 이단도 많았던 하남성

이동하여 두 번째로 일한 지역은 하남성 정주였다. 본디 일하던 곳에서 동쪽으로 1,500km 이동한 셈이다. 차를 몰고 1박2일동안 이동했는데, 말은 통하는 곳이라지만 마치 다른 나라 다른 종족에게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곳 저곳에서 중국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나 이 지역사람들은 타지역과는 또다른 특별하고 강한 근성이 느껴졌다. 어떤 상황에서든 손해를 보려 하지 않고 이득을 추구하는 이 지역사람들은 강한 생존능력과 당당한 야심 같은 것이 충만한 것 같았다. 문제는 분위기나 기질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의 태도도 일반인들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는 점이었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겪은 지역이다 보니, 생존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이 곳 사람들의 근성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손해보지 않는 기독교인'-기독교인의 본질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

하남성은 20~30년 전에 부흥의 핵심에 있었던 지역이다. 핍박도 많이 당하고 부흥도 불꽃처럼 일어나 신자의 수도 많은 지역이다. 이단이 가장 왕성한 지역이기도 하다. 다만 신자수가 많아도 목회자의 수가 부족해 시골가정 교회들은 대체로 담임하는 목자가 없는 사정이다. 읽을 만한 신앙서적도 부족하고 가르칠만한 교사도 부족하여 농촌에 사는 신자들의 형편은 겨우 신앙만 유지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신학교에 심겨 있던 공안의 감시자

우리 가족이 이곳에서 적응, 정착하여 1년쯤 지났을 때 한가지 사건이 생겼다. 저녁에는 가정교회에서 소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다른 때는 소규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강의를 듣던 학생 중 한 명이 나를 향해 사진을 찍고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이상하다는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알아보니 공안에서 생긴지 오래되지 않은 이 신학교의 동태를 파악하고 조사하려고 심어 놓은 사람이었다. 몇 달 뒤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비자가 빨리 나오지 않다가 1달 반이 지나서야 6개월짜리 비자를 겨우 받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을 옮기는 것이 낫다는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한번 더 사역지를 바꾸어야 했다. 제대로 조사를 받으면 추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주에서 남쪽으로 600km 정도 곧바로 내려오면 호북성 우한이 있다. 인구 천 만명이 넘는 대도시이면서 대학이 100개가 넘는 교육도시이다. 신해혁명의 진원지이기도 하고, 20세기 100년간 혁명과 내전, 일본 통치 등의 혹독한 시련기를 겪어서인지 사람들의 성격이 강하고 급하기로 소문난 지역이다. 사람들이 출근길에 면이나 빵, 만두를 길을 걸으면서 아침으로 먹는 모습을 보면, 새삼 이 사람들의 생존력에 놀라움을 갖게 된다.

신앙훈련 없는 교회들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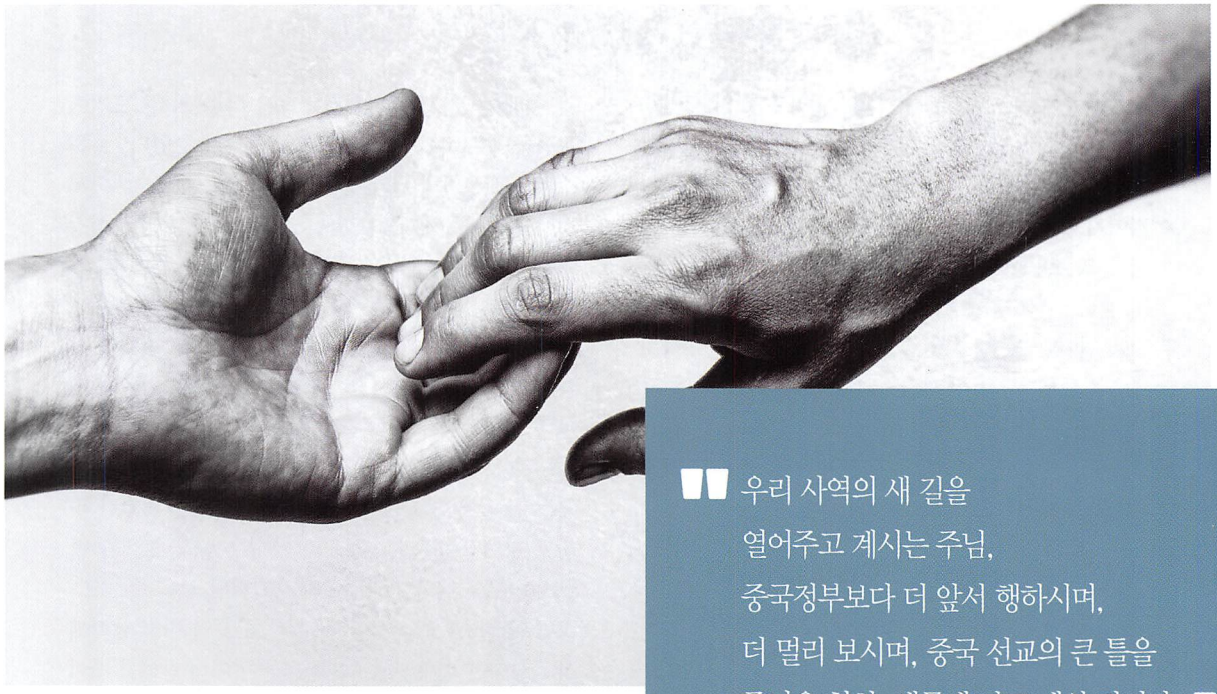
이 곳에서 나는 소그룹 리더교육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여러 개의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가정교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때로는 한 두 명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훈련의 효과는 확실히 좋다고 느꼈다. 네비게이토 선교회가 일대일 양육을 중시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한 가정교회는 규모가 작아 발각될 위험이 없는 것 같아서 1년 정도 설교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약 3년 반 지내면서 여러 유형의 가정교회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특히 영은파(성령의 감동을 추구하는 강한 은사주의 계파) 영향을 받은 교회를 도울 때는 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한 교회를 책임지고 지도하는 목회자가 없는 곳도 많은데, 이런 경우 예배의 형식이나 모양이 질서가 없거나 말씀이 예배의 중심에 오지 못하고, 찬양이나 행사가 예배 중 차지하는 시간비중이 너무 커서, 도리어 교인들의 성숙과 성장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주일학교는 거의 없다시피 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어서 정상적인 다음세대의 교육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일학교 교사의 양성이 구조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주일학교를 만들려는 의욕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 그리고 평신도 양육이나 제자훈련을 시작한 교회도 간혹 있지만, 이 또한 인도하는 목회자나 리더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과 지식이 없어서 양육과 훈련이 공회전 되는 것 같은 상황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건강한 평신도 지도자훈련과 성경교사 양성은 중국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 내야할 과업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고무적인 사실 하나는 이 곳의 여러 대학에서 활동하는 대학생선교회 간사들이 여러 방해를 겪어가면서도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공안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그들이 볼 때 대학생(지식분자)이 훈련받고 헌신하면 두고두고 영향력이 크다고 여긴다. 그래서 캠퍼스사역자 색출과 추방이 한인선교사 추방 시 관건이 되기도 했다.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추방령의 바람이 불 때, 우한은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견디면 추방의 바람이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9월 19명의 명단이 안전국 상부에서 내려왔고, 종교국 공안들은 명단 속 인물들을 조사하려고 찾으러 다녔다. 이 소식을 듣고 미리 이동한 가정도 있지



> 우리 사역의 새 길을
> 열어주고 계시는 주님,
> 중국정부보다 더 앞서 행하시며,
> 더 멀리 보시며, 중국 선교의 큰 틀을
> 주님은 친히, 새롭게 짜고 계신 것이다.

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연행이 되고 약 2시간 정도의 심문을 받았다. 비록 순순히 귀가하도록 해주었지만 속히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으면 2차 심문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명단이 내려온 지 7일만에 결국 출국한 셈인데, 타지역에서 더욱 심한 심문이나 구금을 당한 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다.

중국의 선교사 추방이유

중국이 외국선교사를 추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교사가 체제유지와 발전에 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추구하는 기독교정책은 교회가 정부에 복종하고 정부에 협조하면서 외국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립하는 것이다. 기독교정책의 뿌리에 중국 애국주의와 민족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기독교 정책에는 반외세, 반제국주의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 공산당은 중국기독교가 아직도 서양종교의 탈을 벗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19세기 제국주의 세력이 선교사들과 함께 중국에 진입하였듯이, 외국의 불온한 세력들이 중국을 와해하는 시도를 교회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외국선교사는 언젠가는 쫓아내어야할 외부세력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종교의 중국화, 기독교의 중국화 – 공산당이 말하는 이런 개념은 선교학에서 말하는 건전한 토착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말이다.

삼자교회는 공산당의 통일전선전략중 하나

삼자교회운동을 주창하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공산주의로 이뤄졌다고 보며 기독교는 정부에 협조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삼자애국운동은 사회주의 이념과 기독교를 결합한다는 생각의 기초 위에 진행하는 운동이다. 그들이 말하는 중국적 기독교(또는 기독교의 중국화)는 중국을 위한 애국적 기독교이고 체제에 복종하는 기독교이다. 실은 토착화가 아니라 공산당의 통일전선전략의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강단사역의 본토화'라는 표현으로 시행되는 설교사역의 장악이다. 정부당국은 삼자교회에서 일하는 설교자의 주제와 내용에 간섭하고, 목회자의 설교 전에 정부 당국자가 먼저 애국애교의 교회가 될 것을 훈화한다.

최근 몇 년간 십자가 철거 및 교회 폐쇄와 기독교지도자 공격, 구타가 과거보다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교회 장소를 임대해 준 임대주에게 압력을 넣어 계약서를 파기하도록 하기도 한다. 교회의 모든 재산이나 현금을 압수하고 막대한 벌금을 내도록 하기도 한다. 특히 저장성과 허난성의 피해가 다른 곳보다 더 심했는데 지역

내 폭력배들을 고용하여 교회를 공격한 경우도 있었다. 수십 명의 목회자가 체포되고 실형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핍박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작년 베이징의 미등록 가정교회 지도자들 약 600여명은 중국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를 달라고 연합성명서를 내기도 하였다. 가정교회들은 나름대로 저항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딱히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인권관련NGO들은 현재의 핍박이 문화 혁명이래 최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준비와 적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 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34:10).

위의 시편 구절에는 반어법이 있다. 본래 젊은 사자는 주리는 법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온 몸에 힘이 있고 발이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 사자라도 궁핍하여 주릴 때가 있다고 시인은 말한다. 온 토지가 가물어 먹을 것이 없으면 젊은 사자도 별수 없이 굶주려야 한다. 시대가 악하거나 환경이 너무 안 좋을 때에는 경력과 경험이 있고 아직 쓸만한 선교사도 별 수 없이 쫓겨나고 물러나야 한다.

현재 우리 단체는 중국지역에서 5유닛이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상황을 맞았다. 필자가 볼 때는 경력으로 따지면 다들 하나님이 더 적당하게 쓰실 만한 때가 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시절이 하(몹시)수상(殊常)'하여 정든 사역지를 강제로 떠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고난당하는 중국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될 시기를 맞았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로 이주하는 중국인 디아스포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 각 대륙마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역의 새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 중국정부보다 더 앞서서 행하시며 더 먼 시야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중국 선교의 큰 틀을 친히 새로이 짜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추방당한 분 중에는 이미 해외에서 중국선교훈련센터로 자리를 잡은 분이 있고, 중국 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다. 아프리카, 중동, 말레이지아 등으로 재배치되어 일을 시작한 분들도 있다. 선교사 본인의 은사와 하던 일을 따라 진로를 찾아가겠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새 진로를 모색하면 좋겠다. 과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새지역에서 요구되는 사역에 나는 적합한가. 준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원칙적인 면에서의 마음의 준비와 구체적 실천적인 면에서의 준비가 병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새로운 지역과 종족에 대한 막연하지 않은 구체적 자료조사와 리서치, 탐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때로 위기는 기회로 바뀌기도 한다. 이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일진대, 위기를 기회처럼 사용하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중국인 디아스포라에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디아스포라가 들어간 그곳의 새문화와 언어, 새종족과 나라에 적응해야 한다. 적응과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파송교회와 후원자들은 이러한 과정적인 지체(delay)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과정 속에 있는 여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새로이 배치된 그곳에서 '이제껏 하던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CHOSEN, MK (Missionary Kids)

주희경 선교사

선교지에서는 몰랐던 사역

사실 MK사역은 나 자신이 선교지에 있을 때에는 잘 몰랐던 사역이다. 필리핀에서 12년 사역을 하고 러시아에서도 1년을 지내고 왔지만 MK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관심조차도 없었다. 그러나 한국본부 소속으로 사역지가 변경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선교현장에서 바로 내 옆에 있었던 바로 그 아이들,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핵심이 되는 MK들이라는 것을 본부 사역을 하면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한국본부 소속 381명의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전세계에 흩어져서 그 분들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다.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그 자녀들도 함께 보내어진 땅에서 살며 부모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을 우리는 MK, 즉 Missionary Kids라고 부른다.

나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 본부에서 MK사역을 하고 있다. 왜 하필 이들을 돌보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왜 MK들이 사역의 대상이냐고. 그럼 왜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사역은 하고 있는 걸까?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한가지 덧붙인다면 MK들은 다음 세대의 중요한 선교자원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이야 말로 정말로 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선교사 후보생들이다. 아마도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MK들을 어릴 때부터 옆에서 잘 돌보아준다면 선교의 좋은 재목으로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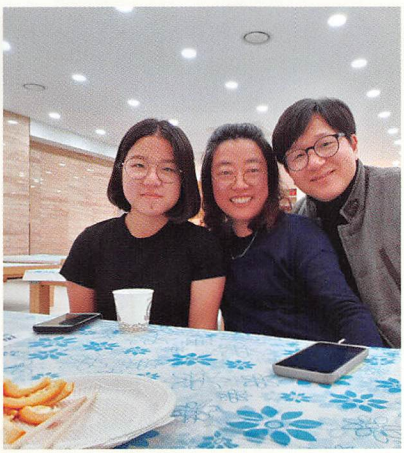
이들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 채 선교지에 따라갔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CHOSEN한 자들이다. 조선을 영어로 어떻게 표기했는지 알고 있는지? CHOSEN이었다. '선택된 자'들이란 뜻임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 MK들이 그 'CHOSEN'의 아이들인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에 MK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혹 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어하는 MK들은 아마도 소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CHOSEN'이다.

이 MK들을 잘 도와주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모든 선교사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군입대 앞둔 MK 환송

한국본부의 MK사역은 한국에 나와 있는 MK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MK들을 학기중에 한 번씩 학교별로 방문을 하여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 두번째로는 군에 입대한 MK들을 위한 면회를 하기도 하고, 군입대를 앞둔 MK들과 환송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세번째로 하는 일은 방



학을 맞이하여 한국을 찾는 MK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또는 선물을 준비하여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하는 일이다. 지난 여름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8월 9일~10일사이에 1박2일 모임을 가지며 앞으로 우리 지피 MK들의 모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다.

MK들이 모여 단순한 교제의 시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부모님의 사역과 지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임, 더 나아가 후배 MK들을 계속 끌어주고 함께 함으로써 지피 MK라는 자부심과 함께 결국에는 하나님의 'CHOSEN'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데 이러한 모임들의 목적이 있다. 이 모임은 여름방학뿐 아니라 겨울 방학에도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지피 MK들이 가능하면 한번씩이라도 이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하나의 네트워 속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네번째로는, 지피 MK들 중에 벌써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MK들과의 네트워도 구축할 계획 중에 있다. 이들도 지피 MK로서 또한 이미 선교훈련을 받은 자들로서, 주의 나라 확장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할 계획이다.

다섯째, 근래에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역은 현장에 찾아가서 현장에 있는 MK들과 함께 3박 4일 또는 4박 5일의 캠프를 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지역회의가 있

을 때 그 지역의 리더십이 요청해 올 경우 이루어진다. 그 회의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과 별개로 현장에서 MK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 한국의 여름성경학교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현장에서 MK들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사역이며,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뿐 만 아니라 MK들에게도 귀한 시간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사역이다. 이 캠프에서는 MK들 자신이 누군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고,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저들의 눌려 있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MK의 정서 케어

지난 사역때에도 많이 느꼈던 점은 한국에 나와 있는 MK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현장에 있는 MK들의 정서 건강 체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전부터는 MK들의 정서 건강 체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인도네시아와 중동지역 회의에 MK캠프를 위해 다녀왔고, 8월 초에는 일본 회의에서MK캠프를 진행하였다.

이 일을 위해 전문가를 모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틈틈이 여러 전문기관들에서 실행하는 교육들을 수차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이 일은 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각 선교사 가정에 맡기신 아이들을 잘 키워내셨고, 키우고 계시며, 또 앞으로 키워 가실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선교사님들의 지원과 기도가 너무도 필요한 사역이다.

'나는 자녀가 없으니 나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기에 더욱 관심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부모 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잘 아시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분야를 더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MK사역에 대한 도전

MK사역에 대해서 도전 또한 드리고 싶다. 간혹 MK사역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어떤 사역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듯해서 이 사역에 대해 나누고알려드리고 싶다. 어느 때든지 요청하시면 도움이든 정보이든 나누고 알려 드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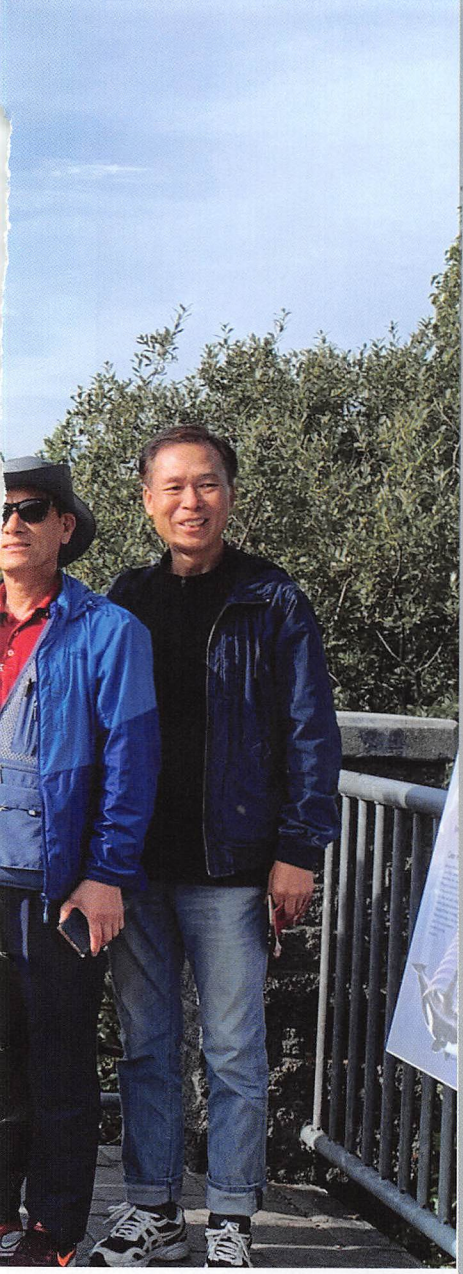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이 지피를, 지피의 MK들을 통해서 더 크게 쓰시리라 기대한다. 앞서 가셨던 선교사님의 일들을 지금 자라고 있는 이 MK들이 그들의 시대에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시대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예비된 지피 MK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소원한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역대하 29:36)

GP국제협의회/GP의 날 스케치

'GP의 날', 앵커리지에 울려 퍼진 주의 은혜

민수식 선교사



지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GP국제협의회가 한국, 미주, 브라질 이사회의 이사들과 각국 본부 대표, 선교사 대표들– 한국: 김인중, 남명철, 이재성 이사, 김동건, 육대주, 민수식 선교사/ 미주: 양성일, 유영기, 정영민 이사, 김승봉, 조용중, 조용문 선교사/ 브라질: 로이스, 조엘 이사, 김선웅, 김혜란, 황종태 선교사–이 참석한 가운데 알래스카 앵커리지 열린문 교회(유재일 담임목사)에서 개최되었다.

김인중 ICM의장의 기도로 회무를 시작하여 먼저 서기에 김동건 한국ND, 회의록 서기로 민수식 일본대만 RL을 선정한 후, 회무 절차에 따라 전 결의사항과 회의록, 2018년 12월 임시 ICM에서 논의한 사항을 김동건 임시 서기가 보고하고, 각국 ND로부터 선교회의 업무, 활동, 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 시간이 있었다.
한편, 박종승 국제훈련원장은 최근 수습훈련과 경력개발훈련 현황, 각국 본부와 국제훈련원과의 개선 필요부분, 국제훈련원의 현 상황, 연합훈련의 모색과 필요성, 앞으로의 방향, 연구개발원의 기능에 대해 보고하였다.

18일 오전 9시에 조용문 선교사가 베트남의 전반적 선교상황, 사역지 상황, 전략적 필요지역 등의 현장이야기와 한국이사회 신임이사로 추대된 박말용 장로의 터키 지역회의 참석 소감을 나눈 후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사역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
이어 김인중 의장이 기도한 후 4가지 안건을 다루는 회무가 속개되었다.
먼저, 김인중 의장이 새로 선출할 국제협의회 의장으로 미주에서 추대한 양성일 미주이사장을 신임 의장으로 추대할 것을 제안하니 모두가 박수로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모습은 아름다운 감동이었다.

신임 양성일 국제협의회 의장이 남은 안건들을 진행하였는데, 국제헌장 수정(각국 매뉴얼)은 기존안을 차기 ICM까지 유예하되 각국 매뉴얼은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정하여 받는 것으로 상정한대로 통과되었고, 국제훈련원장 선출 건도 차기 국제협의회까지 유예기간을 갖고 ICM 임원과 각국 ND들에게 위임하여 차기 국제협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차기 ICM 일정 또한 국제협의회 임원회에 위임하고, 양성일 의장이 롬 14:7~8절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갈 것'을 전하면서 2019년 국제협의회를 마무리하였다. 7월 20일(토)에는 GP 한국이사회로 앵커리지 열린문 교회에서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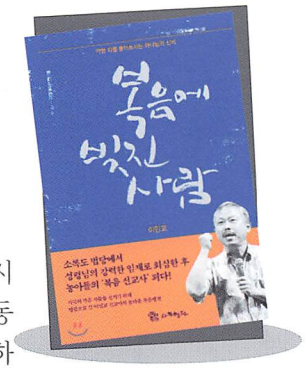
7월 21(주일) 오후 4:30분에는 'GP의 날'이라는 뜻깊은 행사가 앵커리지 소재 교회 연합회의 협력으로 열린문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국제협의회와 한국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과 선교사들, 현지 목회자들과 지역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교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선교사들이 생생한 간증을 나누었고, 김인중 한국이사장은 부흥회를 인도하며 앵커리지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였다.

'GP의 날'에 참석했던 성도 가운데 한 분은 '선교지의 상황을 들으며 벅찬 감동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주 안에서 함께 누리고 나누는 은혜요 기쁨이 아니겠는가!

바라기는, GP가 사명선언문을 따라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좇아가는 공동체로 힘써 감당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간절하다.

『복음에 빚진 사람』[개정판] 이민교 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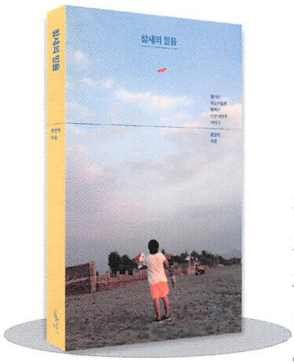


소록도 법당에서 염불하며 목탁을 두드리던 이가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딱딱딱딱…" 한센인들이 동료의 장례식에서 축제처럼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저자는 극락왕생을 축원하며 목탁을 두드리곤 했다. 그런데 그때 듣던 찬송가가 귀에 박혔다가 입으로 터진 모양이었다. 그는 의지와 다르게 터져 나오는 찬송가를 멈출 수 없었다. 방언이 터졌고, 법당에서 데굴데굴 굴렀다. 그는 그렇게 개종하고서 훗날 신학교에 진학,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으로 선교의 길을 걷게 된다. 지금은 목사이자 축구 감독 자격으로 북한을 오가며 북한 농아인 축구팀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 이민교선교사의 이야기이다.

그는 자신을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롬1:14)에서 한 말이기도 하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자신은 복음을 먼저 들었으므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뜻에서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장애인, 한센인, 농아, 무슬림, 북한과 같은 주제들을 붙잡고 살아왔다. 이 책은 중앙아시아 농아인 선교를 하던 그가 어떻게 해서 북한의 농아들을 섬기는 사역까지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갖게 된 비전은 무엇인지도 설명한다.

2010년 발행된 [복음에 빚진 사람]에서 총 4부로 카자흐스탄까지의 삶과 사역을 소개했다면, 이 개정판에 추가된 5부는 북한의 농아축구단을 섬기게 된 사연과 통일에 대한 비전까지 나누고 있다.

– 도서출판 사도행전



『참새의 믿음』 문권익 저

필리핀 이바에서 흘린 눈물의 사역에 대한 기록

청소년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의 영어 어학연수지로, 장년층 이상에게는 휴양지로 알려지며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필리핀. 한때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잘사는 나라였지만 정치 ·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빈곤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기 힘든 질곡의 땅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저자 문권익 선교사는 2005년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에 전념해 왔다.

이 책은 저자가 필리핀 이바Iba 사역 현장—'선교지의 강江들'이라고 비유하는—에서 맞닥뜨린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것들이 지나간 뒤 무지개처럼 나타난 은혜와 사랑의 자취를 담은 것이다. '도강기(渡江記)'라고 명명한 이 책에서 저자는 기쁨보다는 눈물로 건넌 강이 더 많고, 눈물의 강일수록 보석 같은 은혜와 교훈이 강물보다 더 많았음을 고백한다.

필리핀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이끌어온 그는 현지인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고 필리핀의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소명의 길을 찾고 있다. – 홍성사

G P 선 교 사

C지역
GP Korea
김송/정은미
김야곱
김요한/이진
김청해/임하리
박의범
박주용/이주영
사무엘/에스더
신장/김세라
심부름/조이스
양희석
이희은

GP USA
변한나
썬/샤인
이다윗/이안나
이반석/정한샘
이전세/이화평
장용신/장신아
장윤삼/이현순
최명숙
함마태/리브가

일 본
GP Korea
김영남
노학희/계은화
민수식/김난영
박수민/송수아
서진/오은하
원정아
임엘리야/임사라
임종수/김말선
최주석/이민영

GP USA
김미숙
유에스터
함성오/함린다

대 만
GP Korea
김이삭/김진경
장승훈/한은정
정한/정민

GP USA
아굴라/브리스가

베트남
GP Korea
박순종/정은혜
성결/양선
윤이삭/백리브가
이땅/강물
이사야/김사라
임도마/최화평

GP USA
조영문/조금심

캄보디아
GP Korea
김석/이영자
이승희/김현숙
장혁재/허승희
정정미
황요한/조아라

GP USA
황순현/황현주

태 국
GP Korea
곽맹렬/나영혜
김주형/하석미
김정웅/이순교
도한성/한수현
민윤기/안은자
박선진/최정화
서문주
윤제연/김우순
이원석/박영애
전진영/최란
하태민/신정연
한준수/이옥희

GP USA
김바울/김은정
김칠백/홍은옥
이노웅/이은아

미얀마
GP Korea
신성익/김현미
육대주/이연수
이재희/김경희
정시나

라오스
GP Korea
김복만/이복길
김창현
백부장/제실
이병목/장혜진
정재형/정봉숙

네 팔
GP Korea
진실로/오시네
최재원/이양수

GP USA
최동욱/최향숙

인 도
GP Korea
김성자
남조나단/마리아
손미애
조용/송화숙
황대영

GP Brazil
Bienvenida
Anyelen Paniagua

스리랑카
GP Korea
최미선

필리핀
GP Korea
김명식/정지은
김휴성/이나영
문권익/조성임
원인규/편미선
이윤주/강성현

GP USA
김용환/김써니
찰스 오/Hensel 오

말레이시아
GP Korea
남택수/김성애
박상배/이현숙
박택수/김소연
이상준/김영미
진토롱/한루디아

GP USA
권기원/권선주

호 주
GP Korea
이민교/이미라
정영화

인도네시아
GP Korea
권순풍/김열매
김도예
김병선/홍은희
김영숙
김은석/김선옥
김재우/김연희
김한섭/김영임
김화수
나그네/본향
박상준/이숙영
안성원/조은숙
안영란
양성연/이미금
이승숙
전영욱/권재익
한옥희
홍시안

터 키
GP Korea
김요셉/서헬렌
김생명/최나무
엄다윗/윤아비가일
이버란/김보배
장야곱/박조디
하갈렙/최사라
홍알리/손하리

튀니지
GP Korea
소나무/언덕
오다솜
정아론/최올리비아

GP USA
윤재관/윤혜미

독 일
GP USA
이한나

요르단
GP Korea
이요한/김사라

러시아
GP Korea
고석부
박동국/유미경
조동석/곽수희

GP USA
김홍장/김윤덕

이스라엘
GP Korea
김선복/이한나
김영현/황혜영
박에스라/이한나

키르기스스탄
GP Korea
장데이빗/채이리나

GP USA
윤재웅/윤현순
이승인/이진희

카자흐스탄
GP Korea
박은곤/조마리나

아르헨티나
GP Korea
황연규/박진희

GP Brazil
Brian Dirr

멕시코
GP Korea
김은진
이승훈/김정은
허익현/김영중

GP USA
김보라
박기훈/김혜원
박영완/정기영
이사라
전재철/전순혜
지용한/지경애

브라질
GP Korea
정민규/정수정

GP USA
이영대/이애림

파라과이
GP Korea
손경수/임미애
정금태/이복래
하홍석/조인혜

GP Brazil
Jeoung Ho Kim /
Eun Kyung Kim

페 루
GP USA
장인성/장은성

GP Brazil
Jong Tae Hwang/
Ah Rum Kim,
Ronal Flores
Chirinos

과테말라
GP USA
김미숙
신동훈
최남용/최형미

모잠비크
GP Korea
이상범

GP Brazil
Benicio Souza
Campos /
Margarida da
E.V.Tomo

에스와티니
GP Korea
루이스/조이

탄자니아
GP Korea
임수형/홍혜경

GP USA
최재명/방경순

남아프리카 공화국
GP Korea
이원준/유해숙
조동현/신한나

GP USA
조성수/권희숙
허창식/허상분

카메룬
GP Brazil
Titian Nang
Etovghe/Adriana
de Carvalho Nang

한 국
GP Korea
강태진/현혜영
김열방/문아냐
김명호/홍복표
김혁수/최다니엘라
김형철/박인숙
박병창/오영순
송진/이화자
안드레/김조이
이용웅/백운화
이현영
장영호/정강환
조영주/전연주
조용중/최정련
전은표
최건웅

본 부
GP Korea
김동건/배영혜
이병호/최형진
임승현/박진영
주희경
옥토/조은샘

인력자원&연구개발원
박종승/강병옥
경의영/양희윤
안익상/이난영

GP USA
권서/애설리
김승봉/유영선
박에스더
위계헌
이순증/이은선
이은무/박대련
정광성

GP Brazil
Seon Wung Kim/
Hye Ran Kim,
Jong Song Chi/
Sung Nam Lee

수 습
GP Korea
미로
정의한/김수현
Jay Kim

GP USA
김현수/고봉주
Frank/Sara 변

GP Brazil
Shin Young Kim,
Hee Young Kim,
Max Jhoan
Samanez Gomero

GLOBAL partners
글로벌 파트너스

이 사 회

한국 이사회

증경이사장 김달수 박병창 **증경부이사장** 이무형

이 사 장 김인중 **부이사장** 남명철 노상헌 신금용 이승섭 정찬홍

회 계 박동우 **부 회 계** 김정일

서 기 홍승영 **부 서 기** 권혁일

총 무 김동건 **협동총무** 남능현 손근석 이한석

일반이사 김남순 김수경 김재철 김창환 김형수 나동우 문창욱 박무열 박승남 박의서 박지웅 신정엽 염천권 우상두 윤해옥 이규현 이상복 이재성 이 철 최인호 최종천

직능이사 조흥국 **명예이사** 장영호

신임이사 김원수 김진석 김태규 박말용 박인용 장치만

신임직능이사 김재복 **신임후원이사** 박영숙

신임전문위원 김성건 김태균 이유경 임국진

미주 이사회

이 사 장 국제협의회 의장 양성일 **부이사장** 김대영 정영민

실행이사 고현종 김숭봉 김풍운 남성수 백운영 손기호 송병일 송상철 안창호 양춘길 유영기 이경원 정동혁 주인석 황일하

명예이사 서창권 이은무 정광성 조용중 최만영

후원이사 김형수 **직무이사** 이영찬

브라질 이사회

이 사 장 Luiz Carlos Pinheiro **부이사장** Roseli A. de Oliveira Kono Yong Shik Kim

서 기 Aroldo Rapado Marcos de Souza Ferreira

회 계 Hye Ran Kim Patricia S. C. de Souza

이 사 Ildo Alves Dias Andrew Seongmin Kim Joel Ferreira Silva Seon Wung Kim

후 원 안 내

한국본부

E-mail gpkorea@gmail.com **Tel** 02-443-0883

후원계좌 하나은행 990-090818-441 **예금주** 한국본부

미주본부

E-mail admin@gpusa.org **Tel** 1-714-774-9191 / 070-8244-5550

주 소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USA

후원계좌 GPUSA 앞으로 수표 발행 후 check memo: GP USA (선교사 혹은 사역 이름)을 써서 위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브라질본부

E-mail brazilgp@hotmail.com **Tel** 55-11-4727-2262

주 소 R. Francisco Vaz Coelho 272, #93 Vila Lavínia, CEP 08735-440 Mogi das Cruzes, SP. BRAZIL

후원계좌 ITAU은행 / 지점번호 7642

계좌번호 일반예금 ContaCorrente 12896-6 Missao GP Brasil

※첫 송금 후에는 보내신 본부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기도회 안내

PRAY FOR NATIONS

한국본부

매월 둘째 화요일 오전10시
GP 한국본부 지하1층

미주본부

매월첫째목요일오전10시
GP 미주본부 사무실

GP의 사명선언문

GLOBAL Partners

GP의 사명은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이끄는 공동체로서

창의적 선교전략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현지의 지도력을 개발함으로

지구촌을 신속하게 복음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발행처 GP선교회 **발행인** 김동건 **발행일** 2019.9.30. **편집인** 이현영 **편집위원** 김숭봉 김선웅 **디자인** 윤디자인
주소 05810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 8길17(문정동) **TEL** 02-443-0883 **FAX** 02-443-0449 **홈피** www.gpinternational.org